

교 회 소 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오순절 후 열한째 주일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부서지기 모임이 예배 후 4시 30분에 시나이룸에서 있습니다.
4. 다음 주 예배는 야외예배로 드리고, 식사 교제(파트럭)가 있습니다.

- 시 간(time) : Aug. 16. 10:30 AM

장소(location) : Chester Woods Park Shelter #1

주소(Address) : 8378 14 Highway Southeast, Eyota,
MN 55934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최종훈 / 설교번역: 이예슬

8월 안내 및 봉사: 청년 목장

*향후 교회 행사 (Upcoming Event)

- 야외예배 : 8월 16일 주일

*성서일과 Lectionary (제 32주)

왕상 19:9-18 / 시 85:8-13 / 롬 10:5-15 / 마 14:22-33

교회세운날 2017.6.11

26-32

8월 9일 (오순절 후 열한째 주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 일 예 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8월 말까지 쉽니다.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담임목사(Senior Pastor) : 김경현 목사 (213-357-7614)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시 29:1-2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김성하

주일학교 이동 — 주일학교 학생 및 교사

찬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성경봉독 — 마태복음 14장 22-27절 — 인도자

설교 —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 김경헌 목사

봉헌찬송 —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 5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인도자

* 표에는 일어납니다.

목회편지: 이야기로 채워지는 교회

저에겐 8월에 기념일이 참 많습니다. 2015년 8월 2일은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시안이라는 도시에 도착한 날입니다. 공교롭게 같은 날, 2022년 8월 2일 화요일에 우리 가족은 캘리포니아로부터 로드트립을 통해 로체스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저희 가정이 이곳에 이사한 지 만 4년이 이제 채워졌습니다. 물 설고 낯 선 이 곳에 저희가 잘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 여러분 덕에 행복했고 여러분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8월 9일은 제 부친께서 돌아가신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한국의 가족들과의 추도예배도 줌을 통해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의 마음을 이렇게나마 공유하게 되어 감사하지만, 한 편으로 함께 하지 못해 홀로 남겨지신 어머님께 죄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주일 예배 후에 저희 가족만이라도 모아서 추도예배를 드리며 아버지를 추억해 보아야겠습니다. 8월 30일은 저희 부부의 결혼기념일입니다. 결혼 한지 18년이 됐네요. 2년만 지나면 20주년이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귀한 동반자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어떨까요? 저에게 8월에 기념일이 정말 많긴하죠?

한 가지 좋은 일이 지난 주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념일들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기념하며 선물로 주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목회와 목양을 위해 로체스터로 보내 주신 하나님 앞에서 4년을 무사히 목회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던 시간에 받은 선물이라 더 값집니다. 지난 주 주보에 22년 된 자동차가 생기게 됐다고 나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계획이 있으셨더라구요. 하나님의 반전은 놀랍습니다. 저희가 선하다 가족인데, 하나님이 선하다에게 소나타(소나다, 발음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ㅎㅎ)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도 새차를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가 하늘의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이 말씀대로 하늘에서 선물이 똑 떨어진 겁니다. 미션 서포트를 하시는 분께서 저희 정을 위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여 선물해 주신 그 마음이 너무 귀합니다. 설교한 말씀대로 이뤄지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이야기들은 언제나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제국의 이야기, 욕망의 이야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이야기들은 언제 들어도 아름답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이곳에 미리 보여주는 이야기들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져 가야 합니다.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하나교회가 만들어갈 이야기들, 기대되지 않으세요?